

불공견삭관음상

불공견삭은 관음이 현세에 나타날 때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불상은 십일면을 지닌 유일한 불공견삭관음으로 매우 보기 드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간제온지 사원의 본존은 십일면관음으로서 불상의 장식을 불공견삭관음에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공견삭관음은 검을 쥐고 해매는 영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밧줄 고리(견삭)를 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팡이(또는 홀), 연꽃, 의례용 불자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간제온지 사원의 첫 불공견삭상은 흙으로 빚어 만든 소상(塑像)으로 나라 시대(710-794) 중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불상은 1221년에 쓰러져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목상은 그 다음 해에 제작된 것으로 내부에는 첫 불상의 점토 파편이 봉납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517cm이며 이지적인 표정과 명쾌하고 경쾌함이 느껴지는 불상입니다.